

## 천상의 전쟁

© 2009 년 1 월 12 일 아세르 인트레이터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충성된 천사들과 하나님에 대적하는 천사들, 곧 귀신들 간의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2:7 - 그 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우리의 주된 싸움은 육신과 피에 대한 것이 아닌,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엡 6:11-13; 고후 10:3-5). 현재 가자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전쟁은 가자 사람들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로잡은 지하드와 테러, 적그리스도와 반유대주의의 영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엔 탱크와 로켓포 만이 아니라 세계 여론과 언론도 연루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편으로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통해 이슬람 지하드와 싸워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과 UN의 자유주의적이고 좌파적인 인본주의와 싸워야 하는 기괴한 뒷에 걸려 있습니다. 군인들은 용기를 내어 테러리스트들과 맞서야 하지만, 또한 윤리적 전쟁을 위한 가장 엄격한 원칙을 따라 청렴과 인내를 견뎌야 합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로부터 발사된 모든 미사일은 목표물 확인을 위해 카메라에 녹화됩니다. 역사상 어떠한 군대도 이번 전쟁에서의 이스라엘 군과 같은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이 부상 당하는 이유는 하마스에게 기만 당해 인간 방패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의 조종사석에서 찍은 영상은 하마스의 로켓포가 학교와 주택, 모스크로부터 발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10 장을 보면, 다니엘이 3 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영광스런 주의 천사 (예슈아의 탄생 전 형태)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단 10:5-6) 계시를 주십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 주는 것이다" - - 다니엘 10:14.

그 계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곧 다니엘의 때로부터는 아주 먼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는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전쟁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하늘의 사자는 그에게 싸움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 - 다니엘 10:20. 현대의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현재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주 재정 공급원입니다. 그리스는 오늘날 언론과 UN에 드러나는 것과 같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탄생지입니다.

주의 천사는 이 두 세력에 대항해 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려 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이가 없다." -다니엘 10:21. 예슈아와 더불어 이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우는 국가적 천사라고는 미가엘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은 거기 맞서 싸울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까지, 오직 미국만이 UN 에서 이스라엘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안보리의 투표에서 미국마저 기권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속적 인본주의와 이슬람 지하드의 세력에 맞서, 주님의 천사와 이스라엘의 편이 될 사람이 있을까요?

1980 년대에 저는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모두 복사해 반복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서로 맞춰 이해가 될 때까지요.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 마지막 때의 중심 사건은 예슈아의 재림이다.
2. 재림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구절들은 요한 계시록 19 장과 스가랴 14 장이다.
3. 재림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두 구절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요한 계시록 19 장은 예슈아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 천군을 이끌고 이 땅의 나라들을 멸하심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14 장은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주께서 나타나 그들에 맞서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의 이 부분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고 네 번 말씀합니다.

슌 12:3-- "그 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슌 12:9- "그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슌 14:2--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슌 14:12--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Spiritual 영적 전쟁은 또한 거짓에 대한 참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왜 열국은 진리를 듣지 않으려 합니까? 왜 자신들이 기만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팔레스타인 국회의 하마스 회원 유니스 알 아스틸 Yunis al Astil 박사는 극단주의 이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를 정복할 겁니다. 그 다음엔 온 유럽을 정복하고, 다음으로는 남북 아메리카 모두를 점령할 겁니다 (B. D. Yemini, Maariv Weekend, 9-1-2009)."

유럽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제 친구 F는 이번 주에 저희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무슬림 학생들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반대하여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는 교장실로 끌려가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무슬림이 지배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살해됩니다. 오늘날 극단주의 무슬림 설교자들은 유명한 하디스 (무함마드의 명언집; 역주)를 인용하여, 무슬림들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으면 부활의 때는 오지 않을 것이며, 나무와 바위들이 외쳐 내 뒤에 유대인이 숨어 있다 외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유대인과 아랍인,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갈망은 그들이 영생을 얻고, 메시아 예슈아를 통한 은혜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가자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유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마스가 세력을 잃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마스가 사라진 후에야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야 평화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HD** 참고 영상:

<http://switch3.castup.net/cunet/gm.asp?ai=58&ar=longstoryshort-D&ak=null>

*Shaul Byunghyun Lee*